사회복지인 경진대회

② 사회복지 백일장

-페미니즘-

20202344 사회복지학부 이경민

**1. 페미니즘의 정의**

이번 20대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였던 주제를 뽑으라면 “젠더 갈등”과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선 토론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페미니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직접 던지기도 했다. 그 까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먼저 어떤 것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려면 그것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 존재해야 하며, 서로 다른 주제로 논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의는 일치해야 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페미니즘은 정의가 제각각이며 극단적인 페미니즘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 한 남자친구가 나에게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여기서 내가 선뜻 나의 가치 판단을 말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친구와 나의 페미니즘 자체에 대한 정의가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페미니즘이 뭐라고 생각하는데?”라며 먼저 그 친구에게 물었던 기억이 있다. 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왜곡되고 극단적 페미니즘으로만 치부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2. 페미니즘의 역사**

뉴질랜드는 1853년 부유층의 남성들, 1879년 모든 성인 남성들만이 투표권을 가졌으며 여성들은 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오랜시간 싸워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1893년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남성은 1870년, 여성은 50년 후인 1920년에 참정권을 얻었다. 이후 1949년 프랑스에서 보부아르가 <제2의 성>을 출간하여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그동안 가부장제 아래 여성을 얼마나 억압해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당시 이 책은 교황청에서 금서로 지목되기도 하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여성들도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어느 하나 쉽게 얻지 못했으며 평등을 위해 오랜 시간 투쟁해야 했다.

페미니즘이란 여성인권 신장운동이자, 남녀평등운동이다. 남성의 권리를 깎아내 여성에게 주거나 남성을 역차별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남녀불평등이 존재해왔고 이와 같은 역사의 결과로 현대인들까지 성 불평등에 익숙해졌으며 현재도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기울어진 배를 평등하게 바로잡아 여성도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그 기준점에 닿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왜 남녀가 평등하다는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에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남성과 여성으로 갈라져서 싸워야 하는가?

**3. 페미니즘과 20대 대선**

이번 대선에서 젠더 문제는 중요한 이슈였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한국에 구조적 성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과거 페미니즘이 남녀 교제를 막는다는 발언을 했다며 질의를 받았다. 페미니즘이 남녀의 교제를 막는다면 그 교제는 평등하고 건강한 형태의 교제가 아닌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옛날의 가부장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후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선거전략으로 2030세대 청년들은 더욱 분열했고 20대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20대 남성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결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20대 대선 TV 토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이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저출산은 여성이 아기를 적게 낳는다는 뜻으로 인구 감소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인 ‘저출생’으로 표현하도록 바뀌었다. 언어가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용어들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다.

**4. 한국 사회에서의 성범죄**

1973년에 짝사랑하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소년 사건이 있었다. 재판에서 판사가 여학생에 대해 “이왕 버린 몸이니 짝을 지어주어 백년해로 시키는 게 좋겠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다. 당시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여성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한 이런 ‘강간 중매’ 판결은 90년대 후반까지도 존재했다고 한다. 불과 20년 전까지 법원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다니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던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미투운동을 시작으로 피해자임에도 혼자 고통받아야 했던 성범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며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고 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더 악랄한 폭력들이 계속 등장하고 많은 사건들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를 일으키는 남녀 비율을 조사해보면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며 남녀 할 것 없이 딸 낳기 무서운 세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곤 한다. 여전히 여성이 안전하게 살기 힘들고 불안을 갖는 사회라는 것에 어느 정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다.

20대, 30대 남성과 여성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많은 혐오와 갈등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에 젠더 갈등까지 더해져 매우 각박한 사회가 된 것 같아 안타깝다. 이건 누군가가 이득을 얻으면 누군가는 잃게 되는 Zero-sum 게임이 아니다.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고모, 언니, 미래의 자식은 여성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오빠, 미래의 자식은 남성이다. 여성을 위한 복지가 남성을 위한 복지이고 남성을 위한 복지가 여성을 위한 복지이며 궁극적으로 나, 우리 가족, 우리 사회를 위한 복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회적 인식이나 무의식적인 선입견, 관습 등을 바꾸는 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혐오의 감정은 내려놓은 채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자와 여자로 갈라서 생각하기보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해주고 함께 살아가려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